

# '24년 1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 1. 회의 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4 -1	1.17	회의실	10/13	4	1	15	○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강필오·곽선희·김안나·송경용·심상돈·오광호·오동식·이상길·이숙희·조정완

###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이승철(콘텐츠본부장), 이계상(시사보도본부장), 정석훈(경영심의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차장)

##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8	2	0	1	11	0	11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11	0	0	11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시사 용광로>, 화면이 계속 패널들에게 맞춰져 있어 시각적으로 피로감을 줌. 대화에 적합한 화면 전환으로 변화 필요	시사보도 책임자 의견 전달 및 제작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1.29)	'24.1.
"	초등 1년 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사업, 구체적 다양한 정보 부족 아쉬움	<뉴스데스크> 현금성 지원 늘린다는데(1.30) 등 방송 조치	"
"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관심바람	<뉴스데스크> 광주문화방송,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성금 전달(2.7) 광주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1.31), 불황 속 나눔도 줄어..“어려운 이웃에게 더욱 관심을”(1.22) 등 방송 조치	"
"	국가 돌봄 정책변화의 타당성, 안전성, 위험성 보도 바람	<뉴스데스크> 발달 장애인 서비스 중단처분 취소 원고승소(2.8), 현금성 지원 늘린다는데(1.30), <뉴스투데이> ‘늘봄’ 인력 확보 관건(2.14), “돌봄과 교육의 경계 없앤다” 우려 속 시행(1.25) 등 방송 조치	"
"	광주시의 정책 계속 관심을 바람	<뉴스데스크> 지역 공약 제안은 했는	"

		데(2.7), <시사인터뷰 오늘> 2024년 광주시정 계획은(2.12), <본방을 보 자> 광주시 청년 정책 홍보 부족(2.1) 등 방송 조치	
"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자연과 도시 환경을 고려한 미래도시 개발에 관 심을 바람	<본방을 보자>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갑론을박 (2.6) <뉴스데스크> 무등산 평두메습지 람사르 습지 지정 유망 (2.10), 산 깎아 잔디광장?(2.2) 등 방 송 조치	"
"	선거방송 시 공정성에 주의를 바람	편성과 시사보도 책임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1.29)	"
"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 쇼핑몰, 지 역 상권 상생 등 합리적 해결을 위 한 적극적인 관심 필요	<뉴스데스크> 김영록-김산 회동 무산 (2.5), 복합쇼핑몰 상권영향평가 실시 한다(2.4), 반대가 압도했는데 지금은 (2.2), 복합쇼핑몰 상생 선제 대응 (2.1), 강기정, 복합쇼핑몰 연계 '15분 도시' 구상 밝혀(1.21) 등 방송 조치	"
교양	<본방을 보자>, 리포터의 과도한 액 션 어색함	편성 책임자와 담당PD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1.29)	"
"	<본방을 보자> 떡 소개 시 가게의 홍보성 내용 유의 필요	편성 책임자와 담당PD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1.29)	"
기타 (시청자 의견)	코로나 관련 공익광고 송출 시기적 으로 부적절함	송출 중단 조치(1.17)	"
총 건수		11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다.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메일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시사 용광로>, 화면이 계속 패널들에게 맞춰져 있어 시각적으로 피로감을 줌. 대화에 적합한 화면 전환으로 변화 필요	패널들이 발언 내용 미리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자료 영상을 활용해 시각화하도록 조치하겠음	○		
"	초등 1년 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사업, 구체적 다양한 정보 부족 아쉬움	새 학기를 앞두고 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취재하겠음	○		
"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관심 바람	사랑의 열매 성금 전달식 등 다양한 방법의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음	○		
"	국가 돌봄 정책변화의 타당성, 안전성, 위험성 보도 바람	다양한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도하겠음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	광주시의 정책 계속 관심을 바 람	달빛철도, 광주 군공항 이전, 복 합쇼핑몰 추진 상황 등 보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속해서 관심 을 가지겠음	○		
"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자연과 도시 환경을 고려한 미래도시 개발에 관심을 바람	무등산, 습지 등 환경을 보호하 고, 아파트 개발 등에 있어 도시 환경을 고려하도록 지속해서 관 심을 가지겠음	○		
"	선거방송 시 공정성에 주의를 바람	선거구별 후보자 정책을 고르게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 며, 선거 일정에 맞춰 공직선거법 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		
"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 쇼핑몰, 지역 상권 상생 등 합리적 해결 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 필요	지역의 다양한 계층이 상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음	○		
교양	<본방을 보자>, 리포터의 과도 한 액션 어색함	시청 흐름에 방해되는 부분은 없 는지 살펴보고 개선해나가겠음	○		
"	<본방을 보자> 떡 소개 시 가게 의 홍보성 내용 유의 필요	자체 심의를 하고 있으며, 광고효 과를 주지 않도록 유의하겠음	○		
기타 (시청자 의견)	코로나 관련 공익광고 송출 시 기적으로 부적절함	현재는 송출을 중단했으며, 시의 적절한 내용이 방송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음	○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4년 1월)

일 시 2024. 1. 17. 수. 오후 5시

장 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강필오,곽선희, 김안나, 송경용, 심상돈, 오광호, 오동식, 이상길, 이숙희, 조경완(10명)
	회사	김낙곤 사장, 이승철 콘텐츠본부장, 이계상 시사보도본부장, 정석훈 경영심의팀장(4명)

■ 회의 내용

- 조경완 위원장 : -존경하는 위원님들 새해 첫 회의 참석 대단히 반갑다. 제가 위원장이 됐을 때 공적인 임무 외에 사적으로 다들 좋은 분들이셔서 행복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분, 한 분 인격과 교양이 좋은 분들이 만나서 광주MBC라는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것은 기쁨이다. 올해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시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해서 광주MBC가 계속 사랑받는 매체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자. 올해도 많은 활약을 기대하겠다.
- 김낙곤 사장 : -2024년 첫 시청자위원회다.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올해 광주MBC 창사 60주년이다. 무엇보다 시청자의 사랑이 없었다면 60년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시청자를 위한 창사 선물 보따리 잘 준비해서 잘 전달하고자 한다. 그러면 시청자들도 저희를 격려해주실 것이다. 미래전략TF를 구성하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자유로운 생각과 사고로 이끌어달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다. 창사 60년의 해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
- 조경완 위원장 : -작년 경영실적은 어땠나?
- 김낙곤 사장 : -흑자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광역사 급에서는 선방했다고 할 수 있다.
- 이승철 콘텐츠본부장 : -<테마기행 길> 나주 편 촬영, <본방을 보자> 광주 구청장 연말 릴레이 초대석, 유튜브 <전설의 타이거즈> 강상진 송유석 편 촬영을 진행했다. <더 프레지던트> DJ 탄생 100주년 기념 라이브 토크쇼에는 패널로 박지원, 박성제, 민환기 등이 출연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김대중 대통령의 삶과 정치를 조명했다. 주요 계획으로는 <우리는 지역에 살아요> 양림동 편에 양현종 선수가 출연해 제작할 예정이며, <본방을 보자> 신년 자치단체장 릴레이 초대석, <얼씨구TV> 국악 신동 김태연과 친구들 편을 제작한다. 영산강 그란폰도in나주는 나주시와 업무협의를 거쳐 4~5월 중 대회를 치를 예정이다. 소상공인박람회가 내일 광주여대 체육관에서 열리며, 창사 60주년 특별기획 대형 클래식 공연을 검토하고 있다.
- 조경완 위원장 : -창사 60주년 기념사업은 확정이 아직 안 됐나?
- 김낙곤 사장 : -확정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기념 리셉션 및 시상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다. 시사에서도 다양한 기획을 통해 60년의 주인인 시민에게 보답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정리되면 보고하도록 하겠다.
- 이계상 시사보도본부장 : -지난해 말 그리고 연초에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현역 국회의원 위기감이 드러나고 있고 신당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보였다. 화순탄광 폐광 이후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걸 보도했다. 탄광 갱도를 수장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한 지역 주민 반발과 철 같은 각종 폐기물로 인해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뤘다. 부지 매입비가 5백억 원 정도 드는데 지자체 부담으로 떠넘기는 문제도 지적했다. 보도 정보 시스템 '마스-L' 구축을 완료했다. 광주MBC 주도로 완성했는데, 기사 작성에 필수적인 보도 정보 시스템으로 16개 지역 MBC 기자들이 만족도가 높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후보 경쟁이 치열한데 2월 초에 여론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가운데 10곳 정도 후보 지지도를 조사할 것이며,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동네 내 고향 선거구에 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광주·목포·여수 공동으로 만든 구독형 뉴스 제공 서비스 'MBC-Local'은 순항 중이다. 지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 밀착형 뉴스를 생산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조경완 위원장 :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다.
- 강필오 위원 : -<본방을 보자>에서 광주시청 크리스마스 스윙을 소개해줬다. 광주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크리스마스 조명과 사진 명소가 된 그네와 조형물을 알려줘서 주변에도 많이 소개할 수 있었다. 1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하니 방문하셔서 좋은 추억 만드시면 좋겠다. 2024 해돋이 현장인 월산근린공원 새해 일출 행사를 방영해줬다. 2012년에 태어난 아이와의 인터뷰, 남구새마을회에서 준비한 떡국 행사를 시의적절하게 나눠줘서 좋았다. 1월 4일에는 <2024 새해맞이 버킷리스트 도전기>를 주제로 방송되었다. 남부대학교 국제수영장 프리다이빙, 악기 배우기(드럼), 드로잉 카페에서 그림 그리기 도전기를 통해 버킷리스트에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줬다. 특히, 수영을 못해도 즐길 수 있는 실내 스포츠인 프리다이빙에 대해 알려줘서 좋았다. <테마기행 길>은 오감 만족 군산 맛여행을 주제로 방송되었다. 새창이연꽃공원, 대야 전통시장, 한우 특화단지, 말랭이 마을, 군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해망동 위판장에서 흥어 경매, 박대짬, 흥어 짬, 수제 맥주 양조장, 청주 양조장, 우체통 거리를 소개했다.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는 맛과 멋의 고장 군산에 대해 새롭게 알 수 있어서 좋았다. 1월 6일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을 맞는 날이었다. 민주주의와 평화, 국민을 먼저 생각한 참된 대통령 김대중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흔적을 따라가는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과 뒷이야기, 각종 행사를 전해 줘서 좋았다. 2023 대한민국 김치 대전,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대통령의 모든 것'과 같은 큰 행사와 방송이 광주MBC의 시청자위원으로 활동한다고 자부하게 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해 주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싶다.
- 박선희 부위원장 : -<시사 용광로> 12월 21일 방송에서는 내년 총선 앞둔 여야 상황은?을 주제로 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은 국면 전환보다는 공정과 상식의 법치를 내세운 검찰 출신들의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한 꼼수 같아 염려된다. 양당 대립으로 인한 정치대결이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듯하여, 선거구제 확정으로 인한 선거 제도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인 듯하다. 앞으로 선거는 정책 주도 선거가 되어야 할 것 같다. 화면이 계속 패널들에게 맞춰져 있어 시각적으로 피로감이 들었다. 패널들 대화에 적합한 화면 전환을 시도하여 변화를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1월4일 총선과 지역 민심의 향방은? 편도 시청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은 양날의 칼인 것 같았다. 한계와 딜레마 극복이 관건인 듯하다. 광주, 전남 18개 지역구 중 광주, 전남 8개 지역구 여론조사를 보면서 현역과 정치신인들의 대결 구도 속에 현역들이 고전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도 조직력이 뛰어난 현역 정치인이 유리할 듯하다. 세대 교체가 자주 일어나면 중량감이 없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지만 지역과 연령층에 따른 지지율 차이도 있는 것 같다. 여론과 현실 정치의 괴리와 중앙 정치의 존재감이 느껴진다. 신당 창당은 수도권 청년층 표심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퇴행적 선택은 정치후퇴를 가져오기에 선택을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 각 당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이 임박한 만큼 주제 선정이 적절한 것 같다.
 

-<본방을 보자>에서 설 승차권 예매 안내 정보는 시민들 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였다. 뉴스본방에서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초등 1학년 학부모 근로자 2달 동안 10시 출근제 지원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하는 권장 사업인 듯하다. 사랑의 온도탑 실적저조는 코로나 때보다 어려운 광주 상황이 반영된 듯하다. 건설 현장 불경기로 인한 기부금이 현저히 줄어 마음이 무겁다. 우리 동네 맛집에서, 겨울 동해의 민물장어, 바닷장어 지역 맛집 소개 시 주인의 정성스러운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태안 김의 김을 활용한 음식 활용의 다양한 방법과 종류에 따른 아이디어 소개 좋았다. 김 수출이 작년에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이었다는 소식은 고무적이었다. 겨울 한라산 눈썰매장 풍광과 관광객들 모습을 보며 함께 동심으로 돌아간 듯 즐거웠다.
- 김안나 위원 : -정부의 정책으로 시행 중이던 여러 사업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지원금 삭감으로 인해 진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사례가 다반사다. 대부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아 국민이 알 수도 없고 문제 제기조차 안 되는 상황이다. "화순탄광 폐광 이후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 우려 제기" 취재는 현 정부의 계

획 미비, 환경오염 문제, 예산 정책의 불신용 등 다방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좋은 보도였다고 생각한다. 탄광 갱도를 수장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한 지역 주민 반발, 철 같은 각종 폐기물로 인해 환경오염 불가피, 부지 매입비 5백억 원 지자체 부담으로 떠넘겼다는 내용의 보도가 좋았다. <본방을 보자> 뉴스본방은 매일 주요 뉴스를 모아 전달해 주니 너무 유익하고 뉴스가 재미가 있다.

○ 조경완 : -여론조사를 언론사가 합동한 것은 시청률이 잘 나왔을 것 같다. 다시 보기도 많이 본 것 같다. 그래픽 처리 기술이 좋았다. KBS 여론조사 화면을 보면 MBC는 딱딱 돌아가 움직임이 좋은데 KBS는 막대 그래프 정지 화면이었다. 여론조사 결과는 당일 9시에 나오는데, 그래픽을 만들고 작업해야 하는데 번거로운 과정이었을 것 같다.

○ 송경용 위원 : -1월 4일 <본방을 보자>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를 시청했다. 먼저 광주시 초등 1년 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은 사업량의 1시간가량 손실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회사와 합의로 오후 5시 조기 퇴근이 가능하고 광주 관내 법인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새로운 정책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의 설명과 자세한 정보 검색의 방법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제도가 없을 때 부모님의 고충을 한번 더 설명해주고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러한 제도가 광주에만 있는지도 알려주고 대상자 중 외국인도 대상이 되는지도 알려 줘도 좋을 것 같다.

-광주 사랑의 온도탑이 실적이 저조하다고 한다. 전국 평균 90.9도인데 광주는 79.9도로 10억 원가량 차이가 있다. 전남은 95.2도 기록 중이다. 지난해에 비해 저조한 성적인데 그 원인 중 하나가 건설업계 불경기 와 기업의 기부 금액 26억 줄었다는 것이다. 사랑의 온도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사랑의 온도탑으로 인해 도움이 되었던 사연도 함께 이야기해 주면 청취자들이 듣고 나도 조금이라도 도와야겠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랑의 온도탑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시청자들도 있을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거나 기부하는 방법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곡성군 고향사랑 기부제로써 '소아청소년과 기부'인데 목표 금액이 8,000만 원이다. 의료진이 곡성을 방문해 진료하는 것이다. 18만 원 기준으로 450명 참여가 필요하다. 곡성군에는 15세까지 인구가 약 1,800명가량이다. 소아청소년과 진료는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다. 소아청소년과 기부라는 좋은 기부가 생겨 많은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하도록 알려서 좋았다. 8,000만 원이 큰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8만 원이라는 돈으로 쪼개서 계산하여 다양한 사람이 기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추어 준 것 같아서 좋았다. 기부를 통해 행복을 얻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부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심을 바란다.

○ 심상돈 위원 : -<본방을 보자>에서 소개한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사업 의견이다. 300인 미만 중소 1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이다. 1시간 늦은 출근 또는 빠른 퇴근으로 인한 손실분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최대 2개월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2개월 분 748,000원을 지원한다. 근로자 임금은 기존 임금 그대로 유지된다. 정규직 기간제 대체 인력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같은 직장 내 맞벌이 가정은 2달씩 교차지원할 수 있고 다른 직장일 경우 2개월을 동시에 지원도 가능하다고 한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으로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며 본인의 육아휴직을 남겨서 사용하거나 그마저도 안되는 사업장이 많은 현실을 잘 반영한 사업이라고 본다. 지금은 지원 정도가 2개월로 미약하지만 앞으로 지원 가능 사업장과 지원 가능 개월 수도 늘어나고 지속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과 추적이 필요하다. 국가 돌봄 정책의 기초가 요양병원 중심의 '전일' 돌봄에서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중심의 '주간' 돌봄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으로 정책변화의 타당성과 사회적 안전성 그리고 위험성에 대한 보도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오광호 위원 : -<시사 용광로> 광주시의 2024년은? 편에서는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이 새해를 맞아 광주의 기대되는 변화들 그리고 실마리를 찾은 묵은 현안들과 관련된 해결책을 이야기 해줬다. 우선 광주시의

2023년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가뭄을 극복하고, 대유위니아의 부도에서 회생까지 광주시민들과 힘을 합쳐 이루어 낼 수 있었던 일이 가장 뜻깊었다고 대답했다. 벌써 잊혀 가는 커다란 문제들도 시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 이겨낼 수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말에 공감이 되었다. 광주시의 2024년도 모습은 첫째, '복합쇼핑몰 추진 3종 세트'라고 표현했는데, 도시 이용인구 3천만 명을 목표로 활력 있는 광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이야기했다. 다만, 광주의 경제 규모가 3개의 쇼핑몰을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주변의 교통이 더욱 혼잡해지지 않을지 하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다. 쇼핑몰 유치 시 광주시민뿐 아니라 호남권 전체 인구가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감당할 수 있으며, 26년 지하철 2호선 개통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을 더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아무래도 광주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이지 않을까 싶어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있다. 다른 문제로 광주군공항 이전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 무안군과 원활하게 논의되어 빠른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광주광역시도 '인재 양성 사다리' 정책을 통해 AI 사관학교 및 AI 영재고 등 우수 인재 조기 발굴을 위한 대학, 지자체, 산업부의 협업에 힘쓸 계획이라고 했다. 다양한 광주시의 정책에 계속 관심을 바라며, 올해도 많은 이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본방을 보자> 1월 11일 방송 시작 전 광주시의 시내버스 감축 운행 정보가 링크 주소로 안내되었는데, QR 코드로도 안내가 되면 더욱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안내가 있었는데, 조성 20년 이상 된 곳들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으로 선정된 택지지구 6곳에 대해 불필요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자체의 대처가 중요해 보였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이 우선이 아닌, 자연과 도시 환경을 고려한 미래도시 개발에 힘써주길 바란다. '밴드 날다'의 소리꾼 오단해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재즈 사운드와 국악 보컬이 합쳐지며 내는 소리가 지루하지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으며 조화롭게 들려 좋았다. 대중이 좋아하는 시대에 맞는 소리와 전통 판소리를 합쳐진 퓨전 국악 뮤지컬 등을 통해 대중들의 관심이 지속되어 전통의 끈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 오동식 위원 : -<광주MBC 뉴스투데이> 광주 송정역 장애인 주차장 너무 멀다 제하의 뉴스는 광주송정역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까지 거리가 멀어 철도경비대의 직원 주차장으로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장애인이 주차하고 이동하는 과정과 함께 많은 시간 소요와 장거리의 부담이 느껴진다는 인터뷰가 있었으면 더 생생한 뉴스가 되지 않았을까? 장애인의 입장을 배려해 호평받는 도로 교통 시설들에 대한 기획취재를 마련한다면 어떨까? 약자를 배려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다. 영국에서 보니까 버스를 탈 때 장애인이 탈 때까지 한 명도 안 타고 기다린다. 임산부가 있으면 누구도 안 탄다. 그분이 먼저 타고 가야 다른 사람이 탄다. 선진국과 우리나라 의식이 많이 차이가 있다는 걸 느꼈다. 장애인이나 약자에 편견이 있다.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 미약하다. 여러모로 심도 있게 다뤄 약자, 여성, 노인, 아동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며, 방송에서 신경을 써 앞장서주길 바란다.

-1월 3일 전남 출생아 0.6% 증가... '국가 차원 전면적 노력 필요' 뉴스는 지난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전남의 출생아 수가 지난해 7,900여 명 증가했지만, 여전히 감소 지역이 많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내용이다. 뉴스에서는 화순의 1만 원 아파트를 소개했지만, 최근 나주시는 청년들에게 공짜로 아파트를 빌려주는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는 '전남형 만원 주택'을 전남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남에서 유일하게 늘어나는 인구는 외국인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두 번째로 외국인 비율이 높은 영암에서는 이주민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 이상길 위원 : -선거방송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을 다룬다. 여론조사는 공정성과 문항, 보도 내용이 편파적이지 않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후보, 지지자들이 상당히 민감하고 생사를 걸고 뛰는

일도 있다. 공정성에 흠이 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 <본방을 보자>에서는 리포터의 과도한 액션이 있다. 뉴스 본방에서 개 식용 금지 법안을 소개했다. 개 식용 금지 법안 통과에 관한 내용과, 현재 개 식용 음식점에 대한 현황, 그리고 정부의 대처 방안과 마지막으로 외신 보도까지 짧은 시간 내에 중요한 내용들만 요약해서 알려주어 가볍게 뉴스에 접할 수 있어 좋았다. 광주시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도입, 지자체 난색 소식은 첫 번째 뉴스와 더불어 같은 결의 내용을 소개하며 연관성 있어 좋았다. 광주 택시회사 '운행 기준금' 인상 소식은 조금 더 삶에 가까운 이야기를 들려주어 좋았다. 또한 택시 기사 의견뿐만 아니라, 택시회사의 의견도 들려주어 양측의 입장을 다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월간 본술랭에서는 떡을 다뤘다. 새해와 관련된 음식을 소개해줘 더 좋았다. 떡 만드는 과정을 짧게 요약해주어 많은 사람이 헛갈리는 떡국떡과 가래떡의 차이를 더 쉽게 알 수 있었다. 이 가게만의 특성인 위생적인 용기를 소개했다. 또한 가게 소개뿐만 아니라, 어떻게 떡을 보관해야 하는지 방법까지 알려줘서 실용적이었다. 겨울에 인기 있는 호박떡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며, 다른 떡들과 만드는 데 있어 차이점도 쉽게 알려주었고, 얼마나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지 알려줬다. 하지만 인터뷰는 가게 소개보다 광고, 홍보 느낌이 더 많이 들어 아쉬웠다. 신년맞이 매콤한 식탁에서는 광주에 있는 가게들도 아니고, 월간 본술랭 소개하다가 너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광주 가게들이라면 조금은 나았을 수도 있다. 잔잔하게 소개하다가 이 코너만 너무 텐션도 확 올라가서, 살짝 보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겨울이 좋다! 얼음이 좋다!는 겨울맞이 소개라 원주에도 불구하고 코너와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 이숙희 위원 : -MBC가 위기를 기회로 잘 승화시키고 있다. MBC가 잘하고 있고 감성적으로 거부감을 주지 않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길 들었다. 자전거 대회, 김치 축제는 말할 것도 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의가 있었는데, MBC와 할 일이 있으면 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다. 작은 가게에서 10년간 꾸준히 기부하는 가게가 있는데 이런 기부의 방식이 좋다고 한다. 기부의 다양성 이런 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말씀했다. 60년 선물 보따리가 무엇인지 많이 기대된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

-1월 14일 자 <시사 용광로>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듣는다 편에서는 1개의 백화점, 2개의 쇼핑몰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민간기업이 투자 기회가 생겨서 좋지만,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야 할 문제는 많다. 광천 사거리 교통 대란 문제도 있지만 예산이 더 큰 문제이다. 소상공인과의 상생 문제는 멀리 내다보고 지역 상권에 상생 대타협이 필요하다. 광주시의 합리적인 타협이 필요하며 대책을 마련하여 함께 살아가는 광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군공항 이전에 문제는 대원칙이 정해지긴 하였지만, 이전 공간에 대한 그림이 무엇인가? 국민의 세금으로 세워진 공항이 국민의 편의와 합리적인 플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타산에 함몰되지 않기를 바란다. 서로 합리적 관점의 해결이 되길 바란다. 광주와 전남은 사실상 하나가 아닌가. 대 타협의 기적을 기대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

- 조경완 위원장 : -회사 측에서 시청자 의견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의견인데 FM4U 아침 방송 시작 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코로나 관련 공익광고를 송출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달라. 지금은 공익광고는 어떻게 됐나?
- 정석훈 경영심의팀장 : -해당 내용은 즉시 송출을 중단했다.
- 조경완 위원장 : -빠르게 시청자 의견에 대응한 것 같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것으로 1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다.

끝.